

알튀세르의 역사이해* **

- 본질주의적 역사이해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

하 주 영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I-2. 알튀세르의 주체개념
II. 헤겔과 맑스의 관계	III-3. 주체와 이데올로기
II-1. 맑스주의 인식론에 대한 재검토	III-4. 주체없는 계급투쟁 및 대중투쟁
1) 맑스주의 인식론의 본질주의적 전제	III-5. 주체없는 과정과 계급투쟁
2) '이론적 실천'의 이론	IV. 비판적 고찰
II-2. 알튀세르의 변증법 이해	IV-1. 알튀세르의 인식론이 남긴 문제들
1) 중충결정된 모순	IV-2. 중충결정과 최종심급에서의 경제결정
2) 헤겔 변증법의 합리적 핵심	IV-3. 주체, 계급, 개인
III.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	V. 결론
III-1. 이론적 반휴머니즘	* 참고 문헌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사회주의의 국가들의 잇따른 붕괴와 위기는 곧 그들의 사상적 지주였던 맑스주의 철학 및 과학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맑스주의 교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레닌의 말은 하나의 지나친 독단에 불과하다. 누구나 절감하는 바이지만 맑스주의의 재반성과 갱신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사회주의의 위기를 놓았던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마르크스주의가 드러내는 역사이해의 불명료함과 애매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 이 글은 글쓴 이의 석사학위논문(1992년 2월)을 요약한 것이다.

** 일러두기 : 본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알튀세르의 원전은 다음과 같은 약호를 사용하여 괄호속에 출전을 밝혔다. <예> (PM/ *Pour Marx*), (LC I/ *Lire le Capital I권*), (LP/ *Lénine et la philosophie*), (RJ/ *Réponse à John Lewis*), (PO/ *Positions*), (PSS/ *Philosophy and the Spontaneous Philosophy of the Scientists*)

이는 그동안의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속에서 결정론과 주의주의라는 두 가지 대립적인 경향의 역사이해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왔다는 사실에서 쉽게 드러난다. 결정론적 경향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그동안 맑스주의의 역사에서 경제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경제주의는 경제에 의한 다른 심급들(정치, 이데올로기, 이론 등)의 기계적 결정을 강조함으로써 이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상부구조의 독자적인 효과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당기구나 이데올로기기구들의 효과들을 이론화할 수 없게 만들고 또 계급투쟁을 생산력의 자생적 발전에 종속시킴으로써 계급투쟁을 소홀히 하는 악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아왔다.

다른 한편 주의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혁명적 실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는 맑스 주의의 역사 속에서는 '역사주의' 혹은 '인간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사주의는 흔히 인간의 의지나 의식을 과잉 강조함으로써 그러한 의지나 의식에 제한을 가하는 사회, 역사적인 객관적 조건을 무시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와 같은 두 입장 모두 역사 자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맑스 자신의 역사이해의 여러 측면들 조차도 제대로 포괄해낼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맑스 자신은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그 후의 맑스주의자들이 맑스 속의 어떤 한 측면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소해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맑스가 일면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립적인 해석 경향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왔다는 사실은 바로 맑스 자신의 역사이해가 그 만큼 불명료하고 애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맑스의 고전적인 정식을 생각해보자. 이 정식은 우리가 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상부구조는 어떤 자율성도 갖지 못하는 일종의 경제의 부수현상이며 따라서 토대와 상부구조 간에는 일방적인 결정관계와 상응관계가 있다는 해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맑스 자신은 다른 곳(예를 들어 『루이 보나파르뜨 브뤼메르 18일』)에서 정치를 그 때 그 때의 계급 세력들 간의 역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할 때, 위의 정식은 정치적 행위가 수행하는 다소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주의주의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전적 해결방식을 상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엥겔스식의 해결이 그것인 데, 엥겔스는 「블로흐에게 보내는 엥겔스의 편지」에서 토대-상부구조의 조응에 관한 정식과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의 양립가능성의 문제를 역사의 객관적 법칙(필연)과 개인의 의지(우연)의 관계를 통해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힘의 평행사변형¹⁾이라는 물리학적 모델에 의거하여, 역사 속에서 개인적 의지들은 힘의 관계에서 서로 맞부딪치고 조합되게 되는데 이 속에서 개별의지의 의도와는 다른 궁극적 결과(역사의 운동법칙)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알튀세르에 의하면, 이런 설명은 필연(역사의 객관적 법칙)과 우연(개인의 의지)의 관계는

1) 힘들이 둘 쌍 맞부딪히면 그 결과가 제3의 힘이 될 것인데 그것은 각각의 힘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두 힘에 대해 공통적이다. 그리고 두 힘 중 어느 쪽도 제 3의 힘에서 스스로를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제3의 힘의 공동의 작인이다.(PM, 121)

잘 설명해주지만 왜 무수히 많은 개인적 의지들의 결과가 엥겔스가 말하는 그런 식의 필연(역사의 객관적 법칙, 경제에 의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 곧 경제에 의한 결정은 엥겔스에 의해 애초부터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해결방안은 역사에 대한 설명을 힘의 평행사변형이라는 물리학적 모델에 의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설명의 출발점을 인간들의 무한한 개별의지에 두고 있는 데 그런 방법은 바로 맑스가 단호히 거부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PM, 127).

이상에서 우리는 맑스 자신의 역사이해를 정합적으로 해명하는 문제가 결정론적 경향과 주의주의적 경향이라는 두 요소에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고 어느 하나를 폐기하는 것으로도, 또 그 둘을 적당히 결충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편향에 빠지지 않으면서, 역사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가능하게 하려면, 근원적으로는 맑스 자신의 역사이해로 거슬러 올라가 무엇이 맑스 자신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그런 애매성을 낳고 상반된 두 해석을 산출하는 가를 찾아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튀세르의 '중층결정론'과 '주체없는 과정'으로서의 역사이해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고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 과정에서 우리는 맑스의 역사이해가 산출한 불투명성과 애매성이 맑스 자신의 철학적 전제가 갖고 있는 본질주의²⁾적 요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즉 그의 인식론적 전제와 모순론 및 전체와 부분의 관계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변증법이해가 가진 본질주의적 요소가 그의 이런 인식론과 변증법을 근간으로 성립되는 역사이해에도 관철되어 서로 상반된 역사해석을 낳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또한 결국 이 두 편향이 동일한 인식론적 전제와 변증법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글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맑스주의의 본질주의적 철학적 전제들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라는 맥락에서 알튀세르의 철학적 작업의 몇가지 논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맑스자신과 그의 사후로 계속 양산되었던 본질주의적인 전제들과 잔재들은 무엇이었으며 알튀세르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현재의 맑스주의의 위기에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우리는 포퍼의 맑스주의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보지만, 그의 본질주의 정의는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포퍼에 의하면, 본질주의는 사물들의 본질들이 불가피한 역사적 발전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리하여 그 본질들을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또 본질주의에 따르면 최상의, 진실로 과학적인 이론들은 사물들의 '본질들' 혹은 '본질적 성질들' 즉 현상을 배후에 놓여 있는 실재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cf. M.Cornforth, The Open Philosophy and The Open Society, 131쪽.

II. 헤겔과 맑스의 관계

II-1. 맑스주의 인식론에 대한 재검토

1) 맑스주의 인식론의 본질주의적 전제(경험주의적 지식이론)

맑스주의의 인식론은 반영이론이다. 사유는 그의 객관적 조건의 주관적 반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영이론은 존재의 사유(pensée)에 대한 결정성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³⁾. 이것은 그 적용영역인 역사유물론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즉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의 상부구조에 대한 단선적 결정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알튀세르에 따르면, 반영이론을 포함해 그가 경험주의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인식론의 입장이 내포하고 있는 지식개념은 이론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론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론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심금들의 차이와 간격을 확보해주는 자체 메카니즘을 결여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주의의 이론적 기초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문제는 다음이 될 것이다.

① 반영이론은 경험주의에 포함될 수 있는가?, ② 경험주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③ 경험주의는 진정 이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가?

여기서 선결문제는 ②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주의를 알튀세르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알튀세르는 그의 『자본론을 읽자』에서 경제주의와 그것의 반발로서 대두된 역사주의(=주의주의)가 동일한 인식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공유하는 인식론적 기초란 경험주의이다. 알튀세르의 경험주의 지식개념은 주어진 객체와 주어진 주체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을 파악하는 독특한 시각이다⁴⁾. 경험주의가 경험주의인 것은 그것이 양자 사이에 일어나는 지식과정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식에 있다. 모든 경험주의적 지식과정에서 안다는 것은 현실의 대상으로부터 그것의 본질을 추상해 내서 주체가 그 본질을 소유하는 것을 가리킨다⁵⁾. 지식이 추상이라는 말은 현실이 이미 그 자체속에 포함하고 있는 본질을 주체가 추출하는 것이며 이는 현실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지식은 이미 실제로 현실속에 그 현실의 일부분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며 그 지식이 지니는 유일한 기능은 현실로부터 본질적인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 비본질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된다⁶⁾.

³⁾ 엥겔스는 다음을 반영이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사유 내에 물질적 실재의 재생산과정 ② 물질적, 역사-사회적 조건에 의해 사유가 결정되는 과정 Labica et Bensussan (ed.),『Dictionnaire Critique du Marxisme』, 975쪽

⁴⁾ LC I, 39쪽

⁵⁾ ibid, 39쪽

이상에서 우리는 ①의 문제에 답할 수 있다. 반영론은 지식의 내용이 그것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유내에서 물질적 실재의 재생과정이 일어남을 주장하고 사유와 실재의 일치를 참이라고 본다. 따라서 반영론에서 지식의 작업은 실재대상에서 그것의 본질을 추상해내는 것이 된다. 이는 반영이론이 경험주의라는 카테고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③의 문제는 어떠한가? 과연 경험주의는 이론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가? 알튀세르에 의하면, 경험주의적 지식개념에서 지식의 작업은 그 현실적 대상에 대해 실재적으로 아무것도 덧붙여 주지 못한다고 한다. 즉 이때의 지식작업은 현실적 대상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현실적 대상에 현존하고 있는 본질을 그저 보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 것이기에. 이런 개념에서는 지식작업도 현실적 대상속에 이미 현존하게 된다⁷⁾.

알튀세르는 지식작업이 무가 아니라 현실적 대상에 그것에 대한 지식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부가시키는 것이라면⁸⁾, 경험주의적 지식개념에 기초한 역사주의적 맑스주의는 이론적 실천의 고유성을 무시할 기초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알튀세르는 또한 역사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이 철학과 현실역사의 관계를 직접적 표현의 관계로 봄으로써 이론적 실천의 고유성을 부정하게 된 것이 그들의 이론적 기초에 경험주의적 지식개념 뿐 아니라 동시성 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알튀세르에 따르면, 역사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이 철학을 현실역사로, 추상을 구체로, 사변을 실천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동시성(contemporaneité)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 우리는 역사주의적 해석에 불가결한 상이한 이론적 환원과 그 효과들 속에서 모든 역사주의의 근본적 구조를 명확히 볼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 단면을 독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성이다.”(LC, 176)

여기서 ‘본질적 단면’란 역사적 시간 속의 어떤 순간을 수직적으로 절단하는 지적 작업을 통해 사회적 총체, 역사적 총체의 본질을 표현해 주는 어떤 단면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잘 이해하려면, 알튀세르가 역사이론에서 시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의하면, 헤겔주의적 역사이론은 시간을 개념(Begriff)의 현존 양식으로 본다. 따라서 역사적 가능성의 총체성이 드러나는 단일한 직선적인 시간만이 존재한다⁹⁾. 경험주의적 역사이론도 시간에 대해 같은 견해를 취한다. 반면에 알튀세르에게는 사회구성체의 발전이 드러나는 유일한 직선적인 시간이 없다. 사회구성체의 각 수준과 각 요소는 상이한 시간성(temporality)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는 이런 시간성 사이의 괴리가 접합되어 구성된다. 따라서 알튀세르에게서 본질적 단면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헤겔적 시간개념을 공유하는 역사주의적 맑스주의의 주장처럼 ‘본질적 단면’ 절

⁶⁾ ibid, 40쪽

⁷⁾ LC I ,40쪽

⁸⁾ LC I ,42쪽

⁹⁾ Ben Brewster, Glossary, 「자본론을 읽자」 영어판, 321쪽

개'가 가능하려면 그 총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경제적 실천, 역사적 실천, 이데올로기적 실천 및 이론적 실천)이 각각 그 총체 자체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각 요소가 총체의 부분이면서도 그 총체의 본질을 포함하며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총체적 부분이 된다. 이런 총체개념을 알튀세르는 표현적 총체개념 (*l'unité expressive ou spirituelle du tout*)이라고 부른다.(LC I , 120-121) 이렇게 되면 과학, 철학 및 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라는 상이한 부분들 사이에 실제하는 간격과 차이를 무시하게 되며 결국 이론적 실천의 고유성마저 부정하게 된다. 역사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은 동시성개념, 표현적 총체개념에 근거하여 현실 역사와 철학사이의 직접적 관계(현실역사와 철학을 표현적 통일체로 파악)를 수립하려 하지만 결국 이론적 실천으로부터 모든 고유성을 박탈하고 이를 상이한 실천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적 실천 일반으로 환원시키게 된다.

2) '이론적 실천'의 이론

알튀세르는 역사주의적 맑스해석이 갖는 환원론적 구조를 비판하고 맑스주의의 철학이 이론적 실천의 이론임을 주장한다. 즉 역사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철학이 현실역사와 직접적인 표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현실속에서 경험한 것의 반사적인 의식적 산물이 맑스주의의 철학, 과학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과 맑스주의이론의 관계가 외재성의 관계라는 것을 뜻한다¹⁰⁾. 물론 이런 그의 생각(그의 철학관)은 후에 자기 비판된다¹¹⁾. 그러나 이 이론이 갖는 생산적 성격을 부인하지는 않는 듯하다¹²⁾. 그러면 그가 말하는 이론적 실천의 이론이란 무엇인가?

그가 제시하는 유물론적 문제들이 경험주의적 문제들이 지식의 대상과 현실의 대상을 동일시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들을 엄밀히 구별하고, 현실적 대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해내는 지식의 과정이 현실적 대상자체가 생산되는 현실적 과정과는 뚜렷이 구별됨을 전제 한다.

이론적 실천의 대상은 현실적 대상에 관한 비과학적 표상이나 직관의 형태로 존재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과학의 대상은 구체적인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체계로서의 추상적인 것이다. 또 지식의 대상은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래서 지식의 역사속에서 지식의 발전정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취한다¹³⁾. 그러나 아무리

10) 레닌 역시 맑스주의의 이론은 프롤레타리아의 외부에서 수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런 반자발주의의 입장을 카우츠키-레닌테제라고 일튀세르는 부르고 있다. (『Lénine et la philosophie』.)

11) 알튀세르는 「Marxism Today」에서 과학이 외부로부터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도입된다는 입장 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이론과 실천, 당과 대중, 당 지도부와 전사 사이의 관계를 분리 시켜 파악하는 잘못된 관념을 짧고 있다는 것이다.(PSS, 270)

12) L.Althusser, 'Elements of self-criticism, in:『Essays in Self-Criticism』, 147쪽

13)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작업을 가한 원재료와 갈릴레오가 작업을 가한 원재료에는 상당한 차이

발전된 과학의 원재료라 하더라도 현실적 대상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알튀세르의 전제이다¹⁴⁾.

알튀세르는 이론적 실천의 지식생산과정을 세가지 일반성의 구조 가운데서 해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과학은 항상 일반적인 그 무엇 위에서 작업을 가하는 하나의 실천이다.” (PM, 187)

① 과학의 대상은 순수한 현실적 대상이 아니라 항상 이미 주어진 복합적인 원재료이며 그는 이를 일반성 I (Généralité I)이라고 부른다. G I은 그 이전의 실천이나 사회의 다른 실천들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준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다.

② 이론적 실천의 지식과정은 G I에 일반성 II라고 부르는 이론적 생산수단이 작업을 함으로써 G III이라고 하는 고유한 생산물이 산출되는 과정이며 이 생산물이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과정은 전적으로 사유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사유내에서 생산된 지식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¹⁵⁾.

③ G III는 추상적인 원재료가 일정한 변형과정을 거친 변형물로서의 구체적인 것이며, 이를 ‘사유속의 구체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사유속의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지식은 ‘현실적인 구체’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여주는 추상적인 개념들의 총합체로서 이것 역시 그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다. 이어서 알튀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G I(추상성)과 G III(사유내 구체성)사이의 실제적 구별과 현실의 본질을 구성하는 구체에 추상을 대립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구별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유내 구체가 그것의 대상인 구체적 현실에 대한 지식이라는 사실은 이런 이데올로기적 구별속에서만 난관이 된다.”(PM, 190)

④ 이론적 실천의 생산수단이며, 그것의 능동적인 측면인 G II는 어떤 특정한 계기에서 고려되는 과학의 ‘이론’을 규정하는 개념들의 체계에 의해 구성된 것(과학의 문제를)이다. 그는 실천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계기를 이론적 노동수단, 즉 어떤 특수한 구조속에서 인간 및 수단 그리고 그 수단을 이용하는 기술적 방법을 작동시키는 ‘변형의 노동’ 그 자체라는 계기에서 찾음으로써 G II의 역할을 강조한다.(PM,188) 결국 G II는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식의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당연시 하는 것인 인간주체가 아니라 일반성 II이라는 사실이다¹⁶⁾.

가 있다는 것이다.(LC I , 49)

14) “예를 들어 갈릴레오의 물리학이나 맙스의 사적 유물론에서처럼, 과학이 스스로를 구성할 때, 과학은 항상 존재하는 개념들, 표상, 즉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예비적인 일반성 I에 작용한다.” (PM,187)

15) 이 때의 사유란 개인적인 주체의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총체에 접합되어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가리킨다. 구체적 지식은 구체적 현실과 관련되어 있지만, 구체적 현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인 사유 내 구체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이 “사유밖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독립성을 지닌채 존속 한다.”(맑스) (PM , 189-190)

16) 이는 인식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주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인간은 인식의 과정에

알튀세르는 이론적 실천이 현실역사과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영역내에서 일어나기에 일 반성¹⁷⁾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인가를 현실적 과정의 축면에서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¹⁸⁾. 즉 어떤 과학의 실천에 내재해있는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준은 그 과학적 지식이 현실에 대한 인지적 파악을 제공해 주는 고유한 효과(지식효과, l'effet de connaissance)에 의 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LC, 76)

“이론적 실천은 그 고유의 기준이 그 자체에 있으며, 그 자체속에 이론적 실천의 산물을 유효하게하는(validation) 명확한 프로토콜을, 즉 과학적 실천의 생산물이 갖는 과학성의 기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만약 제과학이 진실되게 구성되고 발전한다면 그것이 생산한 지식을 ‘진리’(vraies), 요컨대 지식이라고 선언하기 위해 외부적 제실천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LC, 71)

위의 언급만으로는 지식효과에 대한 설명이 추상적이므로 알튀세르가 말하는 지식효과의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그의 공시성과 통시성개념을 살펴 보기로 하자. 알튀세르는 과학성을 보장하는 사유내적인 특수한 형태가 있다고 본다. 이는 지식이 존재하는 형태를 가리키는데, 공시성(synchronie)과 통시성(diachronie)이 그것이다. 공시성은 ‘사유총체’ 혹은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개념들이 조직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즉 개념들이 위계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이다. 그리고 통시성은 순서지워진 논증과정속에서 개념들이 전개되는 질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적 유물론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생산력, 생산관계, 계급, 자본, 노동력 등-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체계가 공시성이다. 자본주의사회 붕괴의 필연성을 사적 유물론에 의거하여 논증하려고 할때 그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은 어떤 질서에 따라 차례로 동원되어 전개될 것인데 이때 그 개념들의 전개질서가 통시성이다.

알튀세르는 공시성이 통시성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보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개념들의 체계인 공시성은 그 속에 있는 각각의 개념이 그 체계속에서 지니는 위치와 기능을 결정한다.

② 공시성이 논증과정에서 각 개념들이 전개되어지는 통시적 질서를 결정한다. 따라서 과학적인 논증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지식은 개념들과 그리고 그것들의 논증과정에서 전개되는 질서의 토대를 이루는 그 개념들의 체계의 체계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론적 실천의 생산물인 소위 ‘지식효과’는 결국 개념들의 공시적 체계의 통시적 전개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런 공시성과 통시성을 통해 지식생산의 메카니즘이 현실적 대상과 구별되는 지식의 대상들 자신의 고유한 체계와 전개질서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LC I ,83-84)

서 하나의 담지자일 뿐이며 . 이론의 새로운 생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새로운 이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문제를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맥스가 리카르도의 정치경제학에 이론적 작업을 가하여 「자본론」을 산출해냈을때 이런 산출작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변형된 혜겔변증법’이라는 이론적 생산수단이다.

17) 알튀세르는 흔히 맥스주의자들이 어떤 이론의 진리여부를 정치적 실천에서 확인하려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II-2. 알튀세르의 변증법 이해

알튀세르는 헤겔 변증법에 대한 맑스주의 변증법의 특수성, 고전 정치경제학에 대한 맑스주의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특수성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밝혀내는 작업을 통해 과학적 맑스주의를 정초함과 동시에 잘못된 맑스해석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알튀세르는 맑스와 헤겔의 관계의 문제가 올바로 조명될 때만 역사 및 사회에 대한 헤겔식의 사변적 해석과의 명확한 단절이 가능하며 또한 맑스가 헤겔에게 빚지고 있는 궁정적인 빚 또한 제대로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맑스가 헤겔에게서 물려받은 합리적 핵심이 변증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 때 맑스주의 변증법(철학)의 독자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만약 이때 맑스가 그의 변증법이 가지는 독자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저술한 텍스트가 있다면 어려움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맑스는 그런 저작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알튀세르는 맑스의 가장 성숙한 저작인 『자본론』에서 맑스 자신의 그런 변증법이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특유의 '징후발견적 독해'¹⁸⁾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를 이론적으로 추출하려고 시도한다.

I) 중증결정된 모순

알튀세르는 우선 경제주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헤겔의 단선적 모순개념이 우리에게 미리 주어져 있는 복잡한 현실을 파악하는 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함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헤겔의 모순은 외관상으로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서로 구별되는 것 같지만, 각 모순은 절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의 계기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절대이념에 환원된다. 게다가 헤겔의 변증법에는 하나의 본질주의적 전제로서 총체성이 각 부분들을 본질과 현상의 관계 혹은 전체의 어떤 원리를 표현하는 관계로 사유되고 있다. 알튀세르는 이를 표현적 총체성이라고 부른다.

¹⁸⁾ 알튀세르의 작업은 독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는 독해행위의 모형을 맑스와 프로이드 특히 고전경제학에 대한 맑스의 독해 태도에서 찾고, 이를 수용한다. 독해에는 일차적 독해와 징후 발견적 독해(lecture symptomale)가 있다. 일차적 독해는 맑스가 자신의 진술체계로 고전 경제학의 진술체계를 비교하여 그것의 결함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형식의 독해이다. 예를 들어 고전 경제학의 문제들은 맑스의 그것과는 달리 하나의 공백 즉 노동력개념이 없다는 것을 비교를 통해 발견하는 독해행위다. 그런데 왜 이런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2차적 독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맑스는 단순히 고전 경제학의 실수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수가 가능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분석에까지 나아가는 데 이런 독해 태도가 징후 발견적 독해이다. "이 방법은 읽고 있는 원문 속에 감추어진 것을 폭로하고, 최초의 원문에서 필연적인 부재로 나타나는 별개의 원문에 감추어진 것을 관련짓는 한에서, 징후발견적인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방법이다."(LC I , 28-29)

헤겔변증법에 자리잡고 있는 단선적 모순개념과 표현적 총체성은 결국 각 심급들을 하나의 원리나 심급에 환원하는 환원주의를 야기한다. 이는 맑스주의의 역사에서 경제주의로 나타났다. 또 인간주의 역시 역사과정의 복잡성을 인간의 추상적 본질에 귀속시키는 동일한 환원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표현적 총체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튀세르는 복잡한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 '지배의 구조' 속에서 중중결정된 모순개념을, 그리고 헤겔의 표현적 총체성 대신에 복잡하게 구조화된 전체(tout)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사회구성체 안에서 모순은 여러 심급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정을 하지만 동일한 움직임 속에서 거꾸로 사회구성체의 다양한 충위와 심급들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PM, 99-100) 즉 결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데 이를 알튀세르는 그 모순이 중중결정(surdétermination)¹⁹⁾되었다고 부른다. 한 모순이 중중결정되었다는 것은 복합적인 전체속의 모순의 존재조건들, 즉 복합적 전체속의 다른 모순들이 이 모순속에 반영된다는 것을 뜻한다.²⁰⁾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선 알튀세르가 모순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자. 그에게서 모순은 논리적 의미의 모순, 즉 서로 반대되는 부호를 가지고 대립하는 동일한 실체(entités égales)로서 간주되지 않는다.(PO, 161쪽) 만약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단지 논리적인 모순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자본과 권력이라는 하나의 부호를 갖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실체로 파악하게 되는데 사실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알튀세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동일한 역사를 가지지 않으며, 그들은 동일한 세계를 공유하지 않으며, 그들은 동일한 수단을 공유하지 않으며, 그들은 동일한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맞서게 되고 이것은 확실히 모순이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의 관계가 갈등의 조건들을 헤겔의 아름다운 상승(élévation)과 타협속에서 지양하는 대신 그런 조건들은 재생산하기 때문이 다.”(PO, 162)

여기서 우리는 알튀세르가 서로 모순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각기 불균등한 실체(entité)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불균등한(inégale) 모순들이 사회구성체 내에서 상호 중중결정의 작용을 함께 따라, 모순들은 어느 것도 단순하게 발전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이처럼 모순들이 불균등함에 따라 불균등한 모순들에 의해 추진되는 사회발전 역시 불균등하게 된다.(PO, 162) 결국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중결정²¹⁾들로 인해 상이한 패턴의 사회적 발전들이 산출된다²²⁾.

19) 알튀세르는 이 개념을 통해 사회구성체와 그것을 이루고 있는 모순들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즉 모순들이 사회구성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배구조의 주요모순이 사회구성체의 각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20) Ben Brewster, Glossary, FM, 253쪽

21)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알튀세르가 중중결정과 함께 과소결정(sous-détermination)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맑스주의적 전체(tout)가 가진 불균등성은 필연적으로 모순의 중중결정 혹은 과소결정의 형태에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소결정이나 중중결정이 결정의 양적 삭감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한다. 여기서 과소결정이란 “결정의 문턱이(un seuil de la détermination),

모순들은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의 불균등적인 발전과정에서 융합되고, 전위되는 데 이런 융합(condensation)과 전위(déplacement, 대체)는 사태발전의 여러 계기(비적대적, 적대적, 폭발적 계기)들을 설명한다²²⁾.

이제 알튀세르처럼 이해된 맑스주의적 모순의 특수한 구조가 맑스주의의 역사관속에 어떤 모습으로 관철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자. 그는 맑스가 사회구성체의 성격을 헤겔과는 다른 아이디어로 파악하였음을 그의 전체(tout)와 총체성(totalité)개념의 대비를 통해 보여주려고 한다.

헤겔의 생각을 지배하는 개념은 표현적 총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속에서 모든 요소들은 각각이 모든 복잡성 속에서도 단지 한 단순한 원리의 대상화-소외일 뿐인 총체성의 내적 통일성을 표현하는 총체적 부분(parties totales)이 된다. 그리고 그 예로서 알튀세르는 헤겔의 『법철학』, 『역사철학』서문을 들고 있다.

『법철학』 부분만 예를 들어 보면, 헤겔은 객관적 정신의 변증법에서 추상법, 도덕과 인륜의 영역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영역들은 모두 객관적 정신의 산물이며 각 영역은 국가에서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부정의 부정을 통해 타자를 생산한다. 즉 각 영역들 사이에는 많은 차별성이 있지만, 그들의 관계는 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부정된 것의 결과가 부정된 것의 진리라는 것) 그들의 차이는 오로지 다른 차별성속에서 부정되고 초월되기 위해서만 긍정된다. 말하자면 역사적 총체성속에서 모든 구체적 결정항은 그것이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혹은 심지어 군사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의 단일한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데 헤겔은 역사를 바로 표현적 총체성의 범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PO 158)

그러나 맑스의 경우 각 영역의 차별성은(헤겔처럼 외관상이 아니라), 실재하며 그것은 작동영역, 실천과 대상에서의 차이일 뿐 아니라 효과에서의 차이이기도 하다. 맑스가 토대-상부구조라는 건축의 메타포를 위해 원활의 메타포를 버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의 원활은 닫혀 있으며(폐곡선) 총체성의 개념에 상응하여 모든 현상들을 남김없이 파악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나서 그 원활의 중심의 단일한 통일성안에 그 현상들을 재규합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반면에 맑스의 토대-상부구조라는 건축물적 메타포는 모든 것을 이런 범주들로 포괄할 수 있다거나, 또한 모든 것이 토대나 상부구조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단지 맑스는 토대와 상부구조간의 구분이 실재하며, 환원될 수 없다는 것, 결정의 순서에 있어서 토대의 끈과 상부구조의 끈이 균등하지 않으며, 지배적 구조속의 이런 불평등과 불

만약 그것이(결정의 문턱) 돌파되지 않는다면, 혁명이 유산되고 혁명적 상황을 침체시키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PO, 161,164)

²²⁾ Ben Brewster, op.cit. 312쪽

²³⁾ 모순은 과정의 각 계기들에 작용하며 위의 3계기들은 모순의 3가지 형태다. 비적대적 계기는 모순의 중충결정이 전위의 지배적 형태로 존재하는 계기로서 여기서는 역사와 이론에 있어 양적 변화가 진행된다. 다음으로 적대적 계기에서 중충결정이 응축의 지배적 형태로 존재한다. 사회에서는 첨예한 계급갈등으로, 과학에서는 이론적 위기로 나타난다. 마지막 계기인 폭발적 계기는 전체의 분해와 재결합을 야기하는 불안정한 전반적 동요와 응축의 계기로서 질적으로 새로운 토대위에 전체가 전반적으로 재구성된다. (PM,222쪽)

균등이 전체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 따라서 더 이상 단순한 원리의 표현적 통일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알튀세르가 맑스주의의 사회구성체을 총체성이 아니라 전체(tout)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PO, 160)

알튀세르의 말이 옳다면, 헤겔의 변증법에 자리하고 있는 본질주의적 전제인 총체성은 결국 사회구성체를 파악할 때도, 각 부분들이 본질과 현상의 관계로, 혹은 전체의 어떤 원리를 표현하는 관계로 사유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역사이론에서는 헤겔에게서 경제의 본질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면 맑스에게서는 경제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것의 본질이라는 식으로 나타난다.(PM, 108쪽) 그러나 알튀세르에 따르면, 잘못된 맑스이해에서 비롯된 경제와 정치의 암묵적 동일성(현상-본질, ~의 진리)은 모든 사회구성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구조-상부구조 속에서 결정적인 심급들간의 새로운 관계개념을 위해 사라진다.

맑스는 우리에게 사슬의 두 끝을(*les deux bouts de la chaîne*)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최종심급에서 (경제적)생산양식에 의한 결정'이고 또 하나는 '상부구조들의 상대적 자율성과 상부구조들의 특수한 효과'이다²⁴⁾. '최종심급에서 (경제적) 생산양식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알튀세르는 그것이 헤겔의 역사적 총체성의 내적 통일성을 구성하는 '정신적 원리'와 전혀 닮은 데가 없다고 주장한다.

"헤겔에게서 사회적 총체성을 통합하고 결정하는 원리는 사회의 그러한 영역(예를 들어, 경제)이 아니라 사회속에 어떤 자리도, 특권적 실체도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온갖 것(tous corps)으로 존재하는 원리이다."(PM,209)

그런데 알튀세르는 최종심급에서는 경제가 결정적이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반드시 언제나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면서 최종심급에서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경제는 비경제적 요소들이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비경제적 요소들 상호간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성과 의존성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지어 준다. 경제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 자신이 지배적일 것인지 혹은 비지배적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비지배적이 되게끔 결정한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 중의 어떤 요소로 하여금 지배적 역할을 갖게 할 것인지를 그 경제가 결정한다²⁵⁾.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대체하여 지배적 역할을 취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그러한 다양성은 하나의 구조 즉 언제나 어떤 지배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불변적인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알튀세르가 사회구성체를 지배의 구조(*structure à dominant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도에서다. 이에 근거하여 알튀세르는 경제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²⁴⁾ PM, 111쪽

²⁵⁾ 발리바르 역시 최종심급에서 경제의 결정이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양한 구조들에 있어서, 경제는 그것이 사회구조 내에서 어떤 심급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가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결정적이다."(E.Balibar, 『역사유물론 연구』, 224쪽) 이는 사회구성체내의 다양한 관계들의 접합의 형태가 경제적 구조에 의해 궁극적으로 규정된다는 뜻이다.

“결정적으로 심급의 서열을 자리매김하고, 심급들의 관계의 의미를 단일하게 규정하고 과정의 필연성이 상황에 따른 역할 교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채, [...]언제나 최종심급에서 결정적인 모순을 지배적 모순의 역할과 동일시하는 것이 경제주이다.”(PM, 219) 지배적 요소가 무엇이냐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들의 중중적 결정과 그 모순들의 불균등 발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사회구성체에 있어서의 그런 중중결정은 최종심급에서 경제가 결정한다.”

2) 헤겔 변증법의 합리적 핵심

맑스와 헤겔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과학적 맑스주의정초에 있어 불가결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물음은 “맑스가 헤겔의 변증법으로부터 그 합리적 핵심을 취했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이란 무엇일까?”이다. 알튀세르는 『레닌과 철학』에서 헤겔의 변증법에서 맑스가 취했던 궁정적인 부채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헤겔과 맑스의 관계를 검토한다.

우선 그는 헤겔에게서 변증법적 과정으로서의 역사개념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헤겔변증법의 구조자체에 각인되어 있는 변증법에 대한 목적론적 개념을 들고 있다. 그 예로 그는 ‘부정의 부정’을 지적한다.

즉 헤겔의 변증법은 모든 것을 과정 속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고정시켜 바라보는 태도를 거부한다. 그런데 헤겔에 따르면, 이런 과정은 소위 절대이념의 자기현현의 과정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은 절대 이념의 자기실현이라는 목적에 따라 부정의 부정을 통해 지양된다. 여기서 부정의 부정은 과정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것들을 절대이념의 자기실현이라는 목적에 따라 그것들이 갖고 있는 차별성을 무화시켜버리는 데, 우리는 이를 통해 이런 목적실현을 위한 전진의 원동력이 부정의 부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알튀세르는 이런 목적론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과정으로서의 역사개념’이 남는다고 주장한다. 또 헤겔의 변증법에서 맑스가 빚지고 있는 것은 ‘주체없는 과정’(procès sans sujet)이라고 한다.(LP, 68쪽)

물론 알튀세르는 헤겔의 ‘주체없는 소외과정’에서 기묘한 주체를 인정하고 있는 데 그것은 과정의 목적론 그 자체이다.(LP, 68) 그는 『헤겔을 눈 앞에 둔 레닌』에서 이 범주를 보다 상세히 증명한다.

“역사 그 것은 정신이다. 그것은 논리로 시작해서 자연으로 이어지며 정신(즉, ‘역사’ 형식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정신)으로 끝나는 과정에서의 소외의 마지막 계기이다. [...] 이는 역사의 기원이 역사자체에도 ,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주체에도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맑스주의 전통이 자연변증법의 명제를 되찾은 것은 완전히 옳은 일이었다²⁶⁾. 자연변증법에는 역사란 주체없는 과정이며, 역사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변증법은 절대자든 단순한 인간이든

²⁶⁾ 알튀세르가 자연변증법을 항상 궁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연 변증법이 자신이 말하는 ‘변증법의 합리적 핵심’을 제대로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궁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듣 그 어떤 주체의 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는 철학적 주체도, 철학적 기원도 없다는 논란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즉 헤겔이 보기에 자연 그 자체는 자연 자체의 기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 그 자체는 자연과 더불어 시작하지 않는 소외과정 다시말해 그 기원이 다른 데 즉 논리속에 있는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LP, 87쪽)

그렇다면 헤겔에게서 논리의 지위는 무엇인가? 알튀세르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논리(Logic)는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기원 그 자체이자, 그 이후의 소외과정이 시작되는 출발점. 따라서 이 소외과정은 논리라는 주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주체(논리)의 본질을 살펴보면, 그 주체는 기원으로서는 거부된(부정된) 기원(l'origine niée en tant qu'origine)임을 알게 된다."(LP, 88쪽)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의 서두에서 논리는 무속의 존재(l'être dans le néant)를 즉각 부정함으로써 바로 그 시초부터 더불어 시작한 것을 부정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기원을 궁정하면서 동시에 부정해야 한다. 따라서 주체를 가정하는 순간부터 주체를 부정해야 한다. 둘째, 절대이념은 단순히 절대적 방법일 뿐이라는 헤겔의 명제가 있다. 그 방법은 과정의 운동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LP, 88쪽)

이런 식으로해서 알튀세르는 헤겔변증법의 합리적 핵심을 '주체없는 과정'으로 결론짓고 그것이 맑스의 성숙기 저작인『자본론』에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III.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

III-1. 이론적 반휴머니즘

주체없는 과정으로서의 역사이해는 곧 역사에 대한 '이론적 반인간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론적 반휴머니즘은 역사나 사회를 '인간'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국 역사에 대한 인간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선 그는 1845년 『독일 이데올로기』가 나오기 이전의 맑스의 이론적 입장이 바로 이론적 휴머니즘의 입장이었음을 주장한다. 이론적 휴머니즘은 역사를 기원적인 인간주체로부터 설명할 뿐 아니라 역사의 전개 역시 인간의 본질 실현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나 1845년부터 맑스는 역사와 정치학을 인간의 본질에 근거하도록 하는 모든 이론과 근본적으로 결별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들- 즉 사회구성체, 생산력, 생산관계, 상부구조, 이데올로기, 경제에 의한 최종심급에서의 결정 등과 같은 개념들-로 사회와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알튀세르가 자신의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후기 저작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체계들이다. 특히 그는 맑스의 가장 성숙기 저작인『자본론』을 맑스의 과학적 사상이 잘 집약된 저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알튀세르는 맑스의 새로운 개념과 문제들이 과거의 이론적 휴머니즘의 문제들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단절의 지점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이론적 반휴머니즘이 맑스사상의 과학적 출발점이다. 그는 이에 대한 전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Grundrisse)와 “나의 분석적 방법은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주어진 사회시기로부터 출발한다.”(Notes sur Wagner) 그리고 고타강령에서의 휴머니스트적,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인 “노동은 모든 가치와 부의 원천이다.”에 반대하면서 “부르주아지들은 노동에 부당하게 전능한 창조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타강령비판』)고 주장했던 점.

또 그는 이외에도 『자본론을 읽자』에서 맑스가 고전 정치경제학에 수행하고 있는 비판을 검토하면서, 맑스가 비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고전정치경제학자들이 경제적 인간, 욕구의 인간등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 점이라고 주장한다²⁷⁾.

그리고 그는 맑스가 포이에르바하와의 관계를 단절한 사실을 주목하는 데, 그 이유는 포이에르바하야말로 이론적 휴머니즘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철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포이에르바하 철학 전반의 주요원리는 인간, 인간의 본질이었다. 포이에르바하에게서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그것들이 인간의 본질의 실현이거나 투사인 한에서만 그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포이에르바하의 이런 입장에는 마치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 있으며, 그것이 현실적 주체인 각각의 독립된 개별자에게 귀속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²⁸⁾. 알튀세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인간의 본질이 보편적 속성이라면, 실상 구체적 주체들이 절대적인 소여들로서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주체의 경험론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 경험적 개별자들이 인간이려면, 사실상으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그들 각자에게 모든 인간 본질이 있어야 하는 데, 이는 본질의 관념론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경험론이 본질의 관념론을 내포하는 것이며, 이는 상호적이다.”(PM, 234)

위를 통해 우리는 포이에르바하의 이론적 휴머니즘이 본질주의적 전제 즉 ‘인간의 본질이 보편적으로 구체적 개인들에게 존재한다’는 본질의 관념론, 주체의 경험론’을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튀세르는 역사영역의 과학화를 위해서 이런 관점은 폐기되어야 하며, 맑스가 포이에르바하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은 유례없는 과학의 개시 즉 역사과학의 개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맑스의 이런 선언 이후에도 맑스주의의 역사에서 이런 본질주의는 계속 양산되어 왔다.²⁹⁾

27) LC, 8장참조.

28) 맑스는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중 6번째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적 본질을 인간적 본질 안에서 해소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어떤 개개인에 내재하는 추상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이다.”

29) 이에 대한 비판은 몰리나의 글을 참조하라. 그녀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이 맑스주의의 과학적 역사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과 이런 휴머니즘을 과학적 역사관과 절충하려는 과학적 휴머니즘의 시도(세브) 또한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V.Molina, 'Notes on Marx and the Problem of Individuality'

이론적 휴머니즘은 단순히 인간의 권리, 지위향상 및 인간의 스스로에 대한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사이론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의 이론적 결과는 구체적인 현실사회에서의 개별 인간들을 규정하고 제약하고 있는 여러 관계들 및 조건들을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유물론의 이론적 반인간주의란 사회구성체와 역사에 대한 맑스주의 이론에 의해 중심개념으로서의 인간의 개념을 제거하는 것이다. 알튀세르는 이런 입장의 효과가『자본론』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 효과들은『자본론』에서 볼 수 있다. 맑스는 최종심급에서 사회구성체를 결정하고, 그것을 파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어떤 신화적인 인간의 본질 혹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며 인간도 아니며, 심지어 인간들도 아니며, 그 것은 관계, 토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인 생산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생산관계는 인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알튀세르는 강조한다³⁰⁾.

“생산관계는 이중의 관계이다. 즉 일련의 사람들과 사물(생산수단)의 관계와 관련한 사람들의 집단간의 관계이다.” (PO, 179-180)

이는 생산관계에는 물질적인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는 생산수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만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생산수단은 또한 분배의 관계이기도 한데, 즉 생산수단은 생산수단을 한 계급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동시에 사람들을 계급들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인간 개인들은 이 생산관계에 관계하며, 그들이 활동적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관계에 수용되는 한에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하고자하는 맑스에게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생산관계와 같은 개념이다. 이는 생산관계들의 구조가 생산의 담당자 (인간)가 점하는 위치와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알튀세르는 이제 맑스에게서 인간은 생산관계의 담지자 혹은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과정에서 한 기능의 담지자로 취급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제 알튀세르의 이론적 반인간주의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알튀세르에게서 거부되고 있는 주체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다.

Ⅲ-2. 알튀세르의 주체개념

우리는 역사에서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많은 철학의 테제들을 알고 있다. 예컨대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가 그것이다. 이 테제는 인간이 역사의 원재료(역사), 생산수단 그리고 최종생산물인 역사를 만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인간을 역사의 구성적 주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실천은 무제약적, 무한계적인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이 역사속에서 이런 실천을 행하게 될

때 사회의 여러 관계들이라는 필연성을 만나게 되며 이때 관념론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전능한 자유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알튀세르는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적 지식인들이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게하려고 애쓰는 전능한 인간의 자유(초월, 부정의 부정)는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에 부딪히게 되고, 필연성과 만나게 된다고 항변한다. 또 그는 구체적 인간들은 역사에서 스스로가 주체라고 믿으면서 행동하지만 그들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때 알튀세르에게서 주체란 '자유롭고 구성적인 주체'를 의미한다. 그는 이런 철학적 의미의 주체를 공격한다. 대신에 그는 주체의 형태(forme-sujet)로 용어를 바꾼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 개인들은 주체의 형태를 떨 때만 실천의 능동자일 수 있다. 주체형태는 모든 개인들의 역사적 존재형태이다. 왜냐하면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들은 필수불가결하게 이데올로기적 사회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사회관계들은 작동하기 위해 모든 개별 능동자들에게 주체의 형태를 부여한다.”(RJ, 93쪽)

알튀세르는 맑스주의 철학이 기원, 본질과 원인으로서의 관념론적 주체범주와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범주가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 대상에 대한 모든 결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관념론적 주체범주는 역사를 단일한 기원, 본질로 환원하는 역사에 대한 환원주의적 해석을 낳게 되며, 주체 범주는 동일성, 내재성, 책임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포이에르바하 철학에서 인간의 본질은 역사의 기원, 원인이자 본질이다. 또 사르트르에게서 인간들은 역사의 초월적, 구성적 주체이다. 이에 대해 알튀세르는 “맑스레닌주의자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대중이라고 대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를 만드는 것이 대중이라는 대답은 역사가 한 주체의 행위의 결과라는 전제를 가지고 역사 창조의 주체를 묻는 물음에 대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알튀세르에 의하면 대중은 주체범주로 포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실 대중이란 복잡하고 유동적인 전체 속에 모여져 있는 여러 사회계급들, 계층들과 범주들이다. 여기서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라는 말은 계급들의 내부에서 계급들 간의 마찰, 다양한 계급들과 계층들의 지위가 동일한 역사적, 혁명적 과정의 흐름 속에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RJ, 27쪽)

즉 대중은 그것이 가진 유동성 때문에 주체의 특성 중 하나인 동일성(identité), 동일화(identification)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알튀세르의 말이 옳다하더라도, “역사를 만드는 것은 대중이다.”에서 ‘만든다’는 말 속에서 감지되는 ‘구성’의 뉘앙스를 지우기는 힘들다. 따라서 알튀세르는 『공산당 선언』의 테제인 “역사의 원동력은 계급투쟁이다.”에 주목하고 이것이 바로 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본다.

위의 테제에서 역사를 만드는 주체의 물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문제인 ‘역사의 동력’이라는 물음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알튀세르가 『선언』의 테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구성적 의미의 주체개념을 배척하고 이론적 반인간주의에 관점에 서 있으며, 또한 계급

투쟁을 최우선에 위치지우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급조차 역사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III-3. 주체와 이데올로기

우리는 알튀세르가 기원, 본질 및 구성적인 의미의 주체를 거부되어야 할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들이 역사에서 주체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버리기 힘들다. 만약 그런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인간들은 역사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튀세르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이데올로기론을 전개한다. 그는 주체는 기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된 것이며, 그 구성작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우선 알튀세르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관을 살펴 본 뒤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A. 이데올로기

맑스주의적 사유속에서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 현실에 대한 거짓된 표상이다³¹⁾. 그러나 알튀세르에게서 그런 이데올로기 정의는 거부된다³²⁾. 이데올로기가 허위의식이려면 이데올로기의 기원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개념을 상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가 볼때 주체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초기저작에서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현실로서 즉 개인의 주관성과는 무관한 사회현실의 객관적 단계로 정의된다.(PM, 239-240) 그리고 인간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실천은 하지만 알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PM, 239). 또한 이데올로기는 실제의 표상이기는 하나 반드시 거짓된 표상으로 전과학적 인식양식으로 정의되고 있기도 하다.(PSS, 24)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모든 사회의 본질적 요소이자 구조적 특성으로서 그 기능은 사회의

31)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관을 Hirst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이데올로기는 실재에 대한 허위표상(false representation)이다.

② 이데올로기는 실제적 사회관계를 의식에서 왜곡되게 반영한 것이다.

맑스주의에서 허위의식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관계에 의해 설명된다. 이데올로기의 내용(즉 실재)은 주체들을 그들의 경험이 왜곡되어지는 환경에 종속시킴으로써 저절로 허위의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근원은 실재(reality)이다. 즉 실재는 주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다양한 장소, 계급입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Paul Q. Hirst, 'Althusser and the theory of ideology', 385-386쪽

32) '개인들의 임의적이고 심리학적인 창조물'로서의 이데올로기개념은 알튀세르 이전에 이미 그림 시에게서도 역시 거부되고 있었다고 한다.

J. 라레인, 「현대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209쪽

통일성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즉 인간들을 그들의 존재조건 및 다른사람들과 연결시켜 준다³³⁾. 그러나 계급사회에서 이데올로기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갖게 된다. 즉 한 계급이 다른 계급들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³⁴⁾.

그런데 한편으로 「맑스주의와 휴머니즘」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서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이 그들의 실제조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상적 관계의 표상(une représentation du rapport imaginaire des individus à leurs conditions réelles d'existence)으로 정리된다³⁵⁾. 이는 알튀세르가 앞에서 이데올로기적 표상이 실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 언급과는 어긋난다. 이제 그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초기의 두 견해 -즉 이데올로기는 세계에 대한 표상이라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세계에 대해 체험한 관계의 표상이라는 이론-중에서 후자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생산되는 것은 인간들이 현실에 대한 거짓된 표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 아니며, 이데올로기가 투영하는 것은 인간과 현실간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의식이나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즉 그것은 항상 어떤 기구속에 존재하며 또한 그 기구들의 실천 또는 실천들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³⁶⁾. 그리고 개인들이 이데올로기속에서 살게되는 것은 특수한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안의 어떤 실천에 참여함으로써이다.

B. 주체와 이데올로기

이제 알튀세르는 개인들이 이데올로기의 어떤 기제에 의해 주체로 구성되는가를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이데올로기의 중심메카니즘은 개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개인들은 주체들(sujets)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들로서 호명(interpéllation)한다. 이는 주체가 된다는 것(특히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유롭고 유일무이한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결과에 다름아니며, 이데올로기라는 물질적 관계가 개인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한에서만 그들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³³⁾ PSS, 25쪽

³⁴⁾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의 계급적 기능을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지배이데올로기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것, 그리고 지배이데올로기가 피착취계급을 지배하는 데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세계와 체험한 관계를 현실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지배계급으로 형성되는 데도 봉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PM, 242)

³⁵⁾ PM, 240쪽 및 PO, 114쪽 참조.

³⁶⁾ PO, 122쪽

III-4. 주체없는 계급투쟁 및 대중투쟁(동일성문제를 중심으로)

알튀세르는 전술한 것처럼 인간을 역사의 주체로 상정하는 것이 관념론적 사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 때 알튀세르가 공격하고 있는 주체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① 역사를 만드는 구성적 의미에서 인간, 또는 계급이나 대중을 주체로 상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② 주체법주가 갖는 구성적 의미의 적실성이 상실됨에 따라 기원 및 본질로서의 의미 또한 폐기된다.

③ 기원으로서의 주체법주는 폐기되고 주체는 이제 구성된 것이 된다. 즉 주체는 원래부터 선협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영역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④ 주체법주의 결정적 특징 중 하나로 '동일성'이 있다. 알튀세르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대중이다. 대중은 주체법주로 포괄할 수가 없다. 대중은 동일성(정체성)의 문제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튀세르가 대중이 단순히 무작위의 무정형적인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 것은 그가 대중투쟁의 중심에 피착취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를 위치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소위 정통맑스주의자들³⁷⁾은 알튀세르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로하자.

정통 맑스주의자들은 "역사를 만드는 것은 대중이다."는 맑스-레닌주의의 테제에 입각하여 역사의 주체가 대중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 '대중'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마음대로 바꾸고 변형시키며 심지어 조건마저 만들어 내는 구성적 의미의 존재가 아니라 고 반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전거로 내걸수 있는 것은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상황들 아래서가 아니라 직접 맞딱 뜨려진, 과거로부터 주어지고 전해진 상황들 아래서 역사를 만든다."(『루이 보나파르뜨 브뤼메르 18일』, 제1장)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서 주체는 알튀세르가 공격하고 있는 구성적이고 본질적인 기원으로서의 주체 함축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기원, 본질 및 구성적 의미의 주체법주는 맑스주의를 인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르트르, 에리히 프롬, 마르쿠제와 알튀세르의 논적인 존 루이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알튀세르가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맑스주의를 휴머니즘으로 해석하고, 환원하는 인간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알튀세르가 비판하고 있는 주체법주의 특성 중 ①, ②의 비판(기원, 본질 및 구성

37) 정통적인 맑스주의의 용어법에서 sujet는 우선 1) 맑스주의 인식론에서는 인식능력과 인식 기능의 능동적 담지자로서 2) 사회적 실천을 바탕으로 목적지향적으로 환경에 작용을 하여 환경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것으로 만드는 사회적 인간을 가리키는 데 1)은 보통 주관으로 2)는 보통 주체로 번역된다.

적 의미의 주체)을 대부분의 정통적 맑스주의자들이 피할 수 있었다고 해서 역사의 주체가 대중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판가름나지는 않는다.

④의 문제 즉, 주체범주가 갖고 있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동일성(정체성), 동일화의 문제 가 아직 남아 있다.

알튀세르는 대부분의 맑스주의자들이 역사의 주체가 대중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중범주는 동일성(정체성)의 문제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 중을 이루는 여러 계급들과 계층들이 선형적으로 결정되어 있을 수 없으며 주어진 사회조건에 따라 유동적임을 뜻한다.

대중을 주체범주로 포괄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여태껏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던 나라에서 혁명을 수행했던 것은 단지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아니었다. 소련의 경우만 봐도 프롤레타리아트는 빈농이라는 세력과의 동맹을 필요로 했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들 국가들은 또한 맑스의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후진국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 뿐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계급 간의 양극화 테제가 뒤흔들린 오늘날의 사회적 여건 및 상황으로보아 프롤레타리아트만의 힘으로 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가장 발달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알튀세르가 대중범주의 동일성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짐에도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을 갖는 여러 진보적 세력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포스트 맑스주의자들로 분류되는 라클라우와 무페는 알튀세르가 대중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대중의 중심에 프롤레타리아트를 놓는 점을 문제삼는다. 즉 “왜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이런 보편적 중심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 받는가”가 그들이 가진 문제의식이다. 이는 결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체성(*identité*)에 관련한 문제이다.

노동자 계급은 그들이 생산관계에서 점하는 위치에 의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 변혁을 이끌어 갈 정치적 주체(보편적 주체)로 상정되어 왔다³⁸⁾. 그러나 현실의 노동자와 그들의 객관적인 보편적 이해사이에 향촌하는 괴리 및 분열은 어떻게 해석되고 해결되어 왔는가? 또 그런 괴리에 의해 생겨나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성문제는 어떻게 확보되어 왔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존의 맑스주의자들의 대응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카우츠키를 선두로 한 소위 정통 맑스주의자들은 계급의 ‘현 상태의 의식’과 ‘역사적 사명’간의 간격을 정치적 개입에 의해 메꾸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론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페와 라클라우에 의하면 정치적 개입을 정초하는 그 이론이 필연적이고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의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분석은 역사적 세력 간의 세력배치가

³⁸⁾ 맑스는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요구를 계급이해로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진정한 요구라고 말한다. 이때 진정하다는 근거는 계급이해가 바로 객관적인 실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구라는 것이다.(이병창, 「헤겔과 마르크스의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시대와 철학』, 86쪽)

이론에 의한 매개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만큼 결정론적이고 경제주의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카우츠키적 사고에 따르면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은 미리 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³⁹⁾이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이 미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본질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는 노동자들이 역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또 이데올로기와 같은 상부구조 영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도 그들이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결국 역사의 보편적 주체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논리에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성은 선형적으로 확보된다. 이것이 혁명에 얼마나 유익한 결과를 가져 왔는 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다⁴⁰⁾.

한편 로자 륙셈부르크처럼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성은 선형적,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요소들의 중충결정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⁴¹⁾. 라클라우와 무페는 이런 시각이 가지는 현실적 적실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다음과 같이 물음을 제기한다.

“ 그러나 통일과정이 중충결정의 과정이라면 왜 정치적 주체성과 계급위치간에 필연적인 일치가 존재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⁴²⁾

그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혁명적 주체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다⁴³⁾. 그리고 그들은 혁명적 주체들의 범위확대와 관련하여, “만일 경통 맑스주의자들의 견해처럼 혁명적 주체가 생산관계의 수준에서 그것의 계급정체성을 수립한다면 다른 수준에서의 혁명적 주체의 현존은 외부성의 하나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이제 그들은 노동계급의 존재론적 중심성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시도가 본질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공격한다. 심지어 경제주의에 대해 누구보다도 격렬히 비판하였던 레닌, 그랑시, 그리고 알튀세르까지도 그들의 공격대상이 된다.

레닌에게서는 계급동맹에서의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지도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랑시에게서는 역사적 블록의 접합적 핵으로서 노동자계급이 위치지워지고 있으며 알튀세르에게서는 대중투쟁의 구심점이 프롤레타리아계급인데 이는 경제영역이 해제모니적 실천에서 주체를 구성하는 특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서 노동자 계급은 인간의 여러 사회관계중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주체위치를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노동자계급 역시 다양한 사회관계속의 다양한 주체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계급으로서의 통일성은 특정정세의 효과로서만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

39) 라클라우와 무페의 책, 36쪽

40) 현실 역사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상당한 편차를 보여 왔는데, 이런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의 객관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된 공산당의 역할이 적극 강조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에게 부여된 이런 지위는 스탈린시대의 테러적 독재를 낳았다.

41) ibid, 18-23쪽

42) ibid, 23쪽

43) ibid, 11쪽

다.

따라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반자본세력의 결합의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보편적인 주체로 상정되어왔던 노동자들역시 여러 사회관계 속에서 다양한 주체위치를 갖기 때문에 그들의 객관적인 정치적 이해가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알튀세르가 맑스에 대한 헤겔주의적 해석의 유산을 비판함으로써 목적론, 경제주의 및 진화주의 청산에 기여하고 이는 중층결정된 모순관 및 사회관과 상부구조에 대한 심층적 연구로 나타났으나 그가 본질주의를 결정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것은 '최종심급에서 경제의 결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⁴⁴⁾

알튀세르에게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그들이 생산관계에서 점하는 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치 투쟁의 중심적 역할이 확보되지 않으며 상부구조 특히 이데올로기라는 매개를 통해 주체로 형성된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이 미리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카우츠키적 사유는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무페와 라클라우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계급이 중층 결정의 과정을 통해 특히 이데올로기의 매개를 거쳐 주체로서 형성된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왜 그런 과정의 결과가 반드시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 투쟁에서의 주체로 귀결되느냐는 점이다.

결국 무페와 라클라우에게서 노동자계급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에서의 통일성은 선형적으로도, 사후적으로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의 통일성은 이들에게서 완전히 분쇄되어 버린다.

III-5. 주체없는 과정과 계급투쟁

우리는 알튀세르가 역사에 대한 이론적 휴머니즘적 이해를 반대하고, 역사를 주체없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흔히 알튀세르에게 제기되는 물음 중 하나는 "알튀세르가 역사를 주체없는 과정으로 볼 뿐 아니라 계급 또한 역사의 주체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가?"이다. 또 "알튀세르는 계급투쟁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거부하고자 했던 주의주의로 빠진 것은 아니가?"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알튀세르는 앞에서 보았듯이 역사에서 인간은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개별인간들에게 그들이 생산속의 취하는 위치와 기능을 할당하는 것은 생산관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을 한 계급에 귀속시킴으로써 개별인간을 계급들로 구분하고 대립시킨다. 따라서 알튀세르에게서 계급들간의 투쟁은 생산관계의 구조에 의해 객관적으로 파생한 것이지, 단지 인간의 투쟁의식을 고취시킨 결과로 파생한 것은 아니다⁴⁵⁾. 따라서 역사에서 주체가 없다는 것과 계급투쟁을 강조

⁴⁴⁾ ibid., 122-123쪽

⁴⁵⁾ 이런 맥락에서 알튀세르는 경제를 '생산관계 우위하에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로 규정한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본 논문의 IV-5,B를 참조하시오.

하는 것은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가시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계급투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알튀세르에 의하면 잉여가치의 수탈(착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계급투쟁이기 때문이다. 즉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며,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과의 투쟁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과 계급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IV. 비판적 고찰

N-1. 알튀세르의 인식론이 남긴 문제들

A. 이론의 자율성

알튀세르의 프로젝트의 동기는 사적 유물론의 정의 및 그것의 과학성을 방어하기 위해 유물론적 인식론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사적 유물론의 근본테제에 따라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고 역사주의적 맑스주의의 주장대로 상부구조에 과학을 포함시키게되면, 토대에 의해 규정되는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급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게 된다. 게다가 역사주의적 맑스주의해석에서 보았듯이 맑스의 학설을 노동자 계급과 직접적 표현관계속에 위치지우게 되면 이른바 '부르주아과학'과 '프롤레타리아과학' 간의 대치가 선언된다. 이는 냉전시대에는 더욱 첨예화되고, 그런 폐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알튀세르의 철학적 작업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 실천과 그외의 사회적 실천들과의 관계 및 이론적 실천의 지위와 관련해서 제기된다. 이론적 실천은 다른 실천들 중 하나의 실천으로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되며, 최종 심급에서는 경제적 실천에 의해 결정된다⁴⁶⁾.

그런데 한편 알튀세르는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과학이 상부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⁴⁷⁾ 이에 대해 G. Elliott는 알튀세르에게서 이론적 실천은 다른 사회적 실천들과 접합되어 있으면서도, 과학의 역사는 그것들로부터 탈구되어 있으며 대신에 '개념적 역사성의 순전히 내적이고 인식론적인 것'으로 취급된다고 본다.⁴⁸⁾ 그래서 과학의 상대적 자율성은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체와 그것의 역사를부터 확실히 독립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⁴⁶⁾ Bodo Grimm, 「Konstitutionsbedingungen, Inhalt und Funktion des Theorie Louis Althusser」, 1980, 136쪽

⁴⁷⁾ 알튀세르에 의하면, 맑스는 「경제학, 철학수고」를 제외하고는 과학적 지식을 상부구조에 포함시킨적이 없다고 한다.(LC I, V장, 169쪽)

⁴⁸⁾ G.Elliott, 「The Detour of Theory」, 1987, 103쪽

이런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은 '이론적 실천의 상대적 자율성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상대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적 실천은 최종 심급에서 결정적 실천인 경제적 실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론적 실천으로서의 과학은 다른 실천들의 결정의 관련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종류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알튀세르는 상부구조에서 과학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심급에서 결정적인 경제적 실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단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상부구조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결국 a) 과학은 토대에서 독립되어 있다거나 b) 경제적 실천에 의해 결정을 받으면서도, 토대와 상부구조에서 상부구조가 받게 되는 결정과는 다른 종류를 받는다는 말이 된다.

'사회구성체 내부에 있으므로 토대에 의해 최종심급에서 결정을 받긴 하지만, 상부구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알튀세르의 말(그는 '모든 것이 다 토대나 상부구조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을 거부한다.)을 받아 들인다면⁴⁹⁾, a)는 기각된다. 그러나 b)의 경우라도 이론적 실천이 그런 특별한 의미의 상대적 자율성을 갖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B. 이론적 실천의 인식론적 보증

이론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과학적, 이론적 실천의 산물이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런데 『유물변증법에 관하여』(Sur la Dialectique Matérialiste)에서 알튀세르는 이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해소시켜 버린다.⁵⁰⁾ 따라서 『자본론을 읽자』에서는 '이론적 실천이론'의 인식론적 보증의 문제가 실재를 인식의 측면에서 전유하는 메카니즘의 문제로 된다.(LC I, 67)

한편 그가 제시하고 있는 지식의 특성으로서의 지식효과 역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순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⁵¹⁾. 그리고 인식론적 보증의 문제는 과학과 이데올로기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객관성의 계기를 실재대상과의 조응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석연찮은 느낌을 준다⁵²⁾. 좀 극단적인 비판이긴 하지만 엘리어트는 연금술도 그것이 생산물의 질을 유효하게 만드는 명확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천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만일 그의 말대로라면 어떻게 사이비과학(pseudo-science)을 판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엘리어트에 의하면, 알튀세르의 저작 속에는 사고와 현실간의 대옹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한다. 단지 그런 식으로 공인되지 않았을 뿐이긴 하지만, 알튀세르의

⁴⁹⁾ 맘스가 원활의 메타포를 버리고 토대-상부구조의 건축물적 비유를 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글 3장 참조 바람.(PSS, 220)

⁵⁰⁾ G. Elliot, op. cit., 103쪽

⁵¹⁾ ibid., 103쪽

⁵²⁾ 물론 알튀세르라면 이런 문제제기 자체를 '경험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라고 볼 것이지만.

Schema에 의하면 역사유물론은 사회구성체의 역사에 관한 과학이며,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론적 실천의 과학 즉 이론의 이론이자 실천일반의 이론이다. 따라서 알튀세르의 인식론은 실천의 존재론에 의해 보충된다.⁵³⁾ 이제 이론적 실천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한 실재대상의 인지적 전유는 사유와 실재의 '실천'이라는 동형성에 의해 가능해 진다. 과학적 담화의 독특한 성격은 실재의 구조와 담화의 동일성에 의해 보증된다. 또 대상과 대상의 지식간의 관계의 비 문제성(non-problematicity)은 존재론에 의해 보장된다. 엘리어트의 관점에서는 알튀세르의 인식론이 바로 이런 기초위에서만 상대주의로부터 이론적 실천의 이론을 보호할 수 있으며, 그것에 할당된 구획(demarcation)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튀세르는 과학에서 실천기준의 근본적인 내적 성격을 수학에서의 증거의 프로토콜(protocol)의 예에서 찾는 데 엘리어트는 이것을 알튀세르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합리주의적 방식(Spinoza)으로 수학화한 것이라고 본다. 즉 자연, 사회과학들에 선형적인 패러다임의 특성인 내적인 증거의 방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구성물과 그것의 실재대상사이의 대응은 경험주의로 회피된다. 알튀세르에게서 '실재'는 순전히 경의를 나타내는 지위에 있을 뿐⁵⁴⁾ 인식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즉 "현실에 대한 사유는 그 사유로부터 독립된 현실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현실에 관한 사유에 대해 현실은 우위에 있다."(LC I, 106)고 하여 '현실의 우위'를 주장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현실 및 현실 과정과 관련해서 사유와 사유과정이 독자성을 갖는다.'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물론 후자의 테제는 이론의 특수성을 이론화하려고 했던 알튀세르의 의도를 보여 준다. 그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적유물론을 포함한)과학들의 표준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게어서는 자기교정의 개방과 지속적인 새로운 지식생산이 과학성의 기준이 된다. 이론의 끊임 없는 자기교정과 새로운 지식생산과는 달리 현실이 그와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알튀세르는 '이론의 특수성'의 한 계기를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기준만으로는 과학과 이데올로기,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구별하고 구획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자기 반복적이고 발전이 없는 과학은 죽은 과학이므로 그에 맞서 지속적인 자기교정과 생산으로서의 과학을 내세움으로서 그는 맑시즘의 비완결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교조주의적 맑스해석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무기가 된다. 그러나 과학의 객관적, 유물론적 계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실재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알튀세르의 주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튀세르의 인식론이 남긴 그외의 문제들과 공헌을 간단히 정리하기로 하자.

쥬다노비즘에 반대하여 국가, 계급, 당등 과학외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이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그의 동기는 이론의 특수성을 이론화하려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그 속에서 그는 실증주의를 피하면서도 반과학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런 작업을 위해 Bachelard와 Spinoza를 그의 인식론에 끌어 들이는 데, 이에 대해 몇몇 이론가들은 맑시즘안에 비 맑스주의적 철학을 결합시켰다고 보고 비 맑스주의적 철학(합리주의)은 맑시즘

⁵³⁾ G. Elliot 및 Callinicos는 모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⁵⁴⁾ G. Elliot, ibid., 111쪽

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균등한 결합이라고 비판한다⁵⁵⁾. 그러나 어쨌든 그의 시도는 냉전의 유산을 일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알튀세르는 지식의 대상과 현실의 대상간의 구분에 대해 숙고하였는데 그것은 맑스의 사적 유물론 정초속에 개입된 엄청난 이론적 노동을 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였으며 이를 위해 역사에 대한 과학적 이론에 불가결한 것인 부르주아적 상식과의 단절을 강조하고 맑스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능동적 진리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적 실천이론은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에 대한 과학 그리고 자신의 실천에 관한 과학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 알튀세르는 “맑시즘이 노동계급의 외부에서 지식인들의 반직관적 이론적 실천에 의해 생산되고 발전되며 프롤레타리아에게 수입된다.”는 카우츠키-레닌의 테제를 옹호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알튀세르의 후기 저작에서 비판된다.

N-2. 중층결정과 최종심급에서의 경제결정

알튀세르는 그의 중층결정된 모순론을 통해 경제주의로부터 맑스주의를 이론적으로 방어하고자 하였다. 중층결정이 단순한 다원론과 다른 점은 최종심급에서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

그런데 무페와 라클라우는 중층결정과 최종심급에서 경제의 결정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양립불가능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이 궁극적 결정이 모든 사회에 타당한 진리라면, 그러한 결정과 그 것을 가능케하는 조건들간의 관계는 우연적인 역사적 접합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인 필연성을 구성할 것이다. [...] 문제는 만일 경제가 모든 유형의 사회에 대해 최종심급에서 결정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특정 유형의 사회와도 무관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경제의 존재조건들 또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관계와도 분리되어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⁵⁶⁾

따라서 알튀세르가 ‘경제는 그 존재조건들을 가진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런 존재의 유일한 실재는 경제의 존재와 경제의 결정적 역할을 보증하는 실재일 뿐이며 따라서 그러한 존재조건들은 경제자체의 내적 계기가 될 것이며 그 차이는 구성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무페와 라클라우는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알튀세르가 중층결정을 통해 각 심급들의 상대적 자율성을 끌어 들인 것이 최종 심급에서 경제의 결정으로 인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 버렸다. 다시 말해 중층결정된 심급들과 최종심급간의 관계는 최종심급에 의한 단순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무페와 알튀세르에게서 공유되고 있는 것과 대립되는 지점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⁵⁵⁾ ibid, 113쪽.

⁵⁶⁾ E.Laclau and C.Mouffe, op.cit., 123쪽

이 문제의 지형을 좀 더 분명히 하자. 이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은 경제주의의 붕괴이다. 즉 사회구성체를 구성하는 각 심급들이 단순히 그리고 일방적으로 경제에 환원되는 것을 막고 각 심급들이 갖고 있는 차이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립하는 지점은 만약 사회가 최종적인 심급들을 갖고 있을 때 각 심급들이 가진 차이가 보장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검토사항을 살펴 보자.

- 1) 궁극적 국면으로서의 최종심급이 갖는 의미와 역할.
- 2) 심급들이 서로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
- 3) 심급들이 서로 구별되면서도 그 자율성이 상대적이라는 것의 의미.

우선 1의 문제를 살펴 보자. 알튀세르는 최종심급에서 경제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알튀세르의 말을 들어 보자.

“최종심급에서 경제에 의한 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든 관념론적 철학들과 스스로를 구분짓는 것이다. 그것은 유물론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이다. [...] 그러나 최종심급에서 경제에 의한 결정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모든 기계론적인 결정관과 스스로를 구분짓는 것이며 변증법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PO, 154)

여기서 변증법적 입장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것이 종종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유물론적 입장이란 무엇인가? 그는 헤겔을 염두에 두면서 변증법에 새겨진 이데올로기적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맑스는 이를 경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변증법을 지형학(*topique*)의 심급의 기능에 새길때, 자기발전의 자발적 운동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내용을 생산해내는 변증법의 환상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PO, 154)

즉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에 의해 제약되지 않은 변증법은 관념의 전능성을 믿는 환상에 근거한 관념적 변증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다음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최종심급에서 경제가 결정적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체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심급들이 비록 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리 선형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작동할 때 주어진 여러 조건들을 초월할 수 없으며 그런 제약아래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알튀세르의 다음의 언급을 주목하자.

“변증법을 지형학의 제약에 종속시킴으로써 맑스는 변증법을 그 작동의 실제적 조건에 종속시킨다. 그는 변증법을 사변적 어리석음으로부터 보호하고 그것을 유물론적으로 주조되도록 한다.”(PO, 154쪽)

그러나 변증법이 그 작동의 조건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옳다하더라도 그 조건에서 유독 경제가 두드러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알튀세르는 이에 대해서는 별 설명을 하지 않는다. 아마 그는 그것에 대해 설명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맑

스주의자들의 암묵적 전제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잠시 접어 두고, 최종심급의 역할에 대해 알튀세르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사회구성체는 여러 심급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경제적 심급, 정치적 심급, 이데올로기적 심급, 등. 경제적 심급들은 이런 서로 구별되는 여러 심급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 사회의 여러 국면과 상황에 따라 지배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중세사회에서 지배적 역할을 한 것은 봉건교회였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왜 교회라는 것이 지배적 역할을 하였으며 또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페와 라클라우라면 우연성에 의한 사회관계의 접합의 효과로 설명하겠지만 맑스주의자인 알튀세르는 '최종 심급에서 경제의 결정'에 의해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서 앞장에서 중증결정론을 다루면서 설명했던 '최종심급에서 경제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종심급에서 경제가 결정적이라는 것은 심급의 서열을 결정적으로 위치지우고 심급들의 관계의 의미를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최종심급에서 경제가 결정적이라는 것은 사회구조속에서 어떤 심급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알튀세르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페와 라클라우는 최종심급에서 경제가 결정적이려면 경제의 운동법칙이 엄밀하게 내부에서 생겨난 것이어야 하며 정치적 심급이나 여타 외적인 것의 개입으로 인한 모든 불확정성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⁷⁾.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바로 경제영역에 대한 본질주의적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 한다. 또 경제의 운동법칙이 내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관련한 조건은 생산력의 증립성이라는 명제와 상응한다고 한다⁵⁸⁾.

생산력의 발전이 단순히 생산속에서 자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확보해주는 이데올로기 영역을 포함한 상부구조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따라서 경제에는 이런 상부구조적 요인이 항상 침투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를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런 점에서 무페와 라클라우는 옳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가 현실 속에서 서로 삼투되어 있다하더라도 경제와 정치를 동일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최종심급에서 경제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경제가 어떤 외부적인 것의 개입도 배제된 이상적 의미의 구조와 공간을 가진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알튀세르가 최종심급에 대해 결정적인 논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심급에서 경제에 의한 결정이 반드시 무페와 라클라우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경제영역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와 정치가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서로 삼투되어 있다하더라도 경제와 정치를 서로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며, 서로의 역할을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2와 3의 문제를 검토하자. 각 심급들이 서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외관상으로 각 심급들이 여러 차이를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헤겔식으로 말해

⁵⁷⁾ ibid, 98쪽

⁵⁸⁾ ibid, 99쪽

각 심금들이 최종심금의 의도와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인 그런 심금들이라면 각 심금들의 차이는 그야말로 외관상의 우연적 차이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대해 알튀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맑스에게 있어서, 각 심금들의 차이는 실재하며, 그것들은 작동영역, 실천들, 그리고 대상들에서의 차이일 뿐 아니라, 효과에서의 차이이기도 하다.”(PO, 159)

알튀세르는 중층결정론을 통해 각 심금들이 단순히 경제로 환원될 수 없는 자율성, 그러나 최종심금에서 경제에 의해 결정받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정을 받기는 하되 최종심금에서 결정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알튀세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왜 최종심금에서 경제가 결정적인가하는 물음을 가질 수 있다. 무페와 라클라우의 문제제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본질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학적 맑스주의의 성립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더군다나 거센 비판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심금에서 경제의 결정’이 이론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이를 비본질주의적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요청된다.

V-3. 주체, 계급, 개인

A. 인간의 지위와 계급투쟁

알튀세르는 역사를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면 무엇이 역사의 주체인가 ?”,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역사의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흔히 인간은 역사의 주체로 상정되어 왔지 않는가?” 그리고 “알튀세르의 말처럼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면 인간이 역사를 변혁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왔던 계급투쟁, 대중투쟁과 같은 정치적 행위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가? 알튀세르는 이런 의문들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 [...] 즉 생산관계들의 구조가, 생산의 담당자들이 이 기능의 담지자인 한에서, 이들 장소의 점유자인 생산의 담당자들이 차지하고 수행하는 장소와 기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따라서 진실된(과정을 구성하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주체’는 이러한 점유자나 기능자가 아니며, 모든 외관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인류학이 갖는 ‘주어진 것’의 ‘명증성’ 즉 ‘구체적 개인들’ 또는 ‘진실된 인간’도 아니며, 이들 장소와 기능에 대한 정의와 분배인 것이다. 진실된 주체는 이들 정의자 및 분배자, 즉 생산관계들 그리고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사회관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관계들’이기 때문에 주체라는 범주 속에서는 고찰될 수 없다.”(LC II, 53쪽)

위 인용에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한다. 막스의 명백한 정식들을 명백하게 독해하는 한 생산관계는 인간들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체적인 인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알튀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막스-레닌주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분석의 끝에서 현실적 인간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은 현존하는 생산양식의 사회적 관계, 계급관계들, 계급투쟁으로부터 출발하는 분석의 도달점이다. 이는 부르주아의 인간과는 다르다.” (RJ, 33쪽)

이는 역사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그 출발점을 인간에서 구하지 않는 것은 현실의 구체적 인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법칙이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적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음의 정치적 물음을 생각해보자.

“ 인간이 상상속에서나 가졌던 주체로서의 자격이 허구임을 알았을 때 역사를 능동적으로 변혁하고 투쟁하는 정치적 행위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가?”

알튀세르에게서 인간은 생산관계의 담지자로서, 혹은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과정에서 한 기능의 담지자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인간들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그들을 하부구조속의 이런 단순한 기능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라고 알튀세르는 말한다.(PO, 180) 그는 이런 현실을 냉소적으로 보여준다.

“ 사실 생산속의 인간은 생산의 담당자(agent)로 간주되며, 오로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위한 그런 인간이다. 그는 관계의 단순한 담지자, 기능의 단순한 담지자로 결정되며, 완전히 익명의 상태이자 상호교환가능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노동자라면, 그는 거리에 내던져질 수 있으며, 자본가라면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나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그는 생산관계의 법칙에(=착취관계, 따라서 적대적인 계급관계)에 종속해야 한다.” (PO, 180)

만약 개인들을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들의 구체적인 결정항에 종속시키지 않는다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환원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개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환원, 그들을 경제적 담지자로 취급하는 환원을 결코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들의 삶과 구체적인 투쟁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궁극적으로 파악하려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환원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알튀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조건들을 창출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가의 계급투

정의 발전(자본주의적 착취) 그 자체다.”⁵⁹⁾(PO, 181)

이제 앞에서 제기되었던 물음(정치적 행위와 관련한)에 대한 알튀세르의 대답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 오히려 정반대다. 인간에 대한 부르주아적 물신승배의 비판은 정치적 행동에 그것이 줄 수 있는 모든 힘을 준다. 정치적 행동을 계급투쟁에 중시하는 시킴으로써 계급투쟁은 개인적 투쟁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사회관계의 혁명적 변혁과 생활을 위해 조직된 대중의 투쟁이 된다.” (RJ, 34)

이는 우리가 정치적 행동을 해 나갈 때 그 모호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대어 무모한 투쟁을 벌려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필연적인 조건들 즉 계급투쟁의 조건들을 인식하고 이에 입각하여 정치적 행동을 벌려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에서 개인의 역할 및 혁명적 당의 존재, 성격 및 실천등은 인간의 자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상태, 노동자운동의 상태, 노동자 운동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그것의 관계 및 대중노선과 대중의 실천과 같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역사에 대한 이론적 반인간주의의 관점이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즉 인간을 단지 언제든지 상호 교환 가능한 생산관계의 담지자로, 경제적 기능의 담당자로 환원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이기에, 그리고 이런 생산관계는 곧 착취관계이자 적대적인 계급관계이기에 여기에서 계급투쟁이 강조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B. 개인/개인성의 문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즉 알튀세르는 역사를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으로 보고 개별인간은 물론 계급이나 대중들조차도 엄밀한 철학적 의미에서 역사의 주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알튀세르의 이론적 반인간주의의 관점에서 개인들은 경제적 기능의 단순한 담지자로 취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개별인간들의 개별적인 속성조차 이런 경제적 관계속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알튀세르에게서 개인성의 문제를은 폐쇄되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먼저 맑스에게서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몰리나에 의하면⁶⁰⁾, 맑스는 『포이에트바하 테제』에서 개인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ensemble of social relations)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맑스의 이론적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맑스에게서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제공된 사회적 결정행(determinations)에 의해

59) 자본주의의 노동조직은 노동자들을 한 작업장에 집결시키고 그들에게 노동과 일상생활의 강고한 규율을 부여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pss, 237)

60) V.Molina, 「Notes on Marx and the Problem of Individuality」

결정된 존재로서 오로지 이런 관계들안에서만 존재한다. 맑스는 또한 개인들을 의인화 (personification)로 개념화시켰다. 예를 들어 자본가는 자본의 의인화라는 식이다. 그런데 맑스의 이론에서 개인들이 오직 그들의 사회적 bonds와 관련되는 이유는 생산관계의 객관적 성격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자연적 (비 사회적) 결정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의식, 의지와 활동성이 생산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결국 맑스의 이론은 구체적 개인들의 이론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몰리나는 알튀세리안들이 개인을 기능의 담지자로 보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본론』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분석이며, 자본론에서 개인은 오로지 이런 관계들의 담지자(bearers and agents)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⁶¹⁾. 그리고 맑스는 개인을 다름에 있어 다음을 명백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즉 의인화 (경제적 범주들의 담지자로서)의 개인과 개인을 개인으로서(경제적 관계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개인적 차이들에 따라) 다루는 것.

이와 함께 몰리나는 맑스의 분석대상은 개인이 아니지만, 맑스의 이론에서 나타난 개인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을 구비한 개인(naked individual)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성을 사고하는 이론적 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개인성에 대한 문제를 형성은 오직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대한 기준지식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알튀세르의 테제(개인을 사회적 관계의 담지자(supports)로 보는 것)가 맑스 이론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정식화로 개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 단지 이는 문제의 출발점일 뿐이다. 알튀세르의 이론적 반인간주의는 맑스의 역사적 유물론의 성격에 관한 테제이지 반 개인성의 테제(anti-individuality thesis)는 아니다.

V. 결 론

이 글은 맑스주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양산되어 맑스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했던 두 편향인 결정론적 경향과 주의주의적 경향이 근본적으로는 맑스 자신의 역사이해가 갖는 애매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맑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런 애매성을 낳고 서로 상반된 두 해석을 낳는지를 찾아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즉 “맑스의 역사이해가 산출한 불투명성과 애매성은 맑스 자신의 철학적 전제가 갖고 있는 본질주의적 요소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나름대로의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루이 알튀세르의 이론을 도입하였다.

⁶¹⁾ ibid, 44쪽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맑스 자신에게도 존재하며 맑스 이후에는 보다 과잉된 형태로 나타났던 본질주의적 요소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경험주의적 지식이론과 헤겔의 단선적 모순론, 표현적 총체, 본질-현상, 부정의 부정, 주체와 소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본질주의적 요소들이 역사해석의 두 편향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알튀세르는 이런 본질주의적 요소를 대체하기 위해 '이론적 실천의 이론', '증증결정론'과 '주체없는 과정으로서의 역사이해'를 도입하여 맑스주의를 새롭게 정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질주의에 대한 알튀세르의 진단이 옳았다고 해도 그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이 꼭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역시 이런 본질주의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적어도 그가 보여준 이론적 시도는 맑스주의이론의 과학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I. 알튀세르의 저작들

- Althusser, L., *Pour Marx*, Paris, François Maspero, 1965.
- , *Lire le Capital*, I, II권, Paris, François Maspero, 1968.
- , *Lénine et la philosophie*, Paris, François Maspero, 1969.
- , *Réponse à John Lewis*, Paris, François Maspero, 1973.
- , *Essays in Self-Criticism*, London, NLB, 1976.
- , *Positions*, Paris, Editions Sociales, 1976.
- , *The Crisis of Marxism*, in *Power and Opposition in Post-Revolutionary Societies*, London:Ink Links, 1979.
- , *Philosophy and the Spontaneous Philosophy of the Scientists*, London, New York, Verso, 1990.

II. 알튀세르 학파의 저작들

- Balibar, E., *The Vacillation of Ideology*, in *Nelson, c.& Grossberg.L.ed.,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Mcmillan Education, Ltd., 1978.
- Balibar, E., 이해민 역, *역사유물론 연구*, 푸른산, 1989.
- Lecourt, D., *Proletarian Science?*, London, NLB, 1977.
- Macherey, P., *In a Materialist Way*, in: A.Montefiore, (eds.), *Philosophy in France Today*, Cambridge, Cambridge Univ.Press, 1983.

III. 그외 외국 저작들

- Brewster, B., 'Glossary,' in: *'Reading Capital'*, London, Verso, 1979.
- Callinicos, A., *'Althusser's Marxism'*, New York, Pluto Press, 1976.
- Callinicos, A., 황석천 역, *『마르크시즘의 미래는 있는가』*, 열음사, 1989.
- Cornforth, M., *'The Open Philosophy and The Open Societ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5.
- Elliott, G., *'The Detour of Theory'*, London, New York, Verso, 1987.
- Engels, F., *'Ludwig Feuerbach und deutschen Klassischen Philosophie'*, in: MEW 21.
- Geras, N., *Althusser's Marxism : An Account and Assessment*, Vol.13, No.71, 1972.
- Glucksmann, M., *'Structuralist analysis in contemporary social thought'*, London &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 Grahame Lock, *'Louis Althusser and G.A.Cohen : a Confrontation'*, Economy and Society Vol.17 No.4, 1988.
- Grimm, B., *'Konstitutionsbedingungen, Inhalt und Funktion der Theorie Louis Althusser'*, Köln, 1980.
- Hirst, P., *'Althusser and the theory of ideology'*, Economy and Society Vol.5, No.4, 1976.
- Jahn, W., *'Einführung in Marx's Werk 'Das Kapital-1'*, 1986(최경 역, *『고전입문2』*, 거름, 1988).
- Konstantinov, F.(ed.), *『토대/상부구조론 입문』*, 학민사, 1988.
- Laclau, E. & Mouffe, C., *『헤게모니와 사회변혁』*, 터, 1990.
- Larraín, J., 신광영 역, *『사적 유물론과 사회이론』*, 나남, 1990.
- Larraín, J., 한상진 역,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한울, 1984.
- Marx, K., *'Thesen über Feuerbach'*, in: MEW 3.
- Marx, K.,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in: MEW 13.
- Molina, V., *'Notes on Marx and the Problem of Individuality'* in: *'Karl Marx'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Vol.4, Routledge, 1990.
- Mouffe, C.(ed.), *『Gramsci and Marxist Theor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9.
- Vincent Descombes,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0.

IV. 국내저작들

- 김재현, *「알튀세르의 '모순'에 대한 소고」*, 철학논집 제3집, 경남대 철학과, 1988.
- 윤소영, *「알튀세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 사회, 제1권 4호, 문학과 지성사, 1988.
- 윤소영, *『에티엔 발리바르의 '정치경제(학) 비판'』*, 한울, 1987.

이병천, 「맑스의 자본주의경제의 역사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1991.

v. 기타 문헌들(사전, 잡지류)

Labica, G. et Bensussan, G., «Dictionnaire Critique du Marxisme», P.U.D.F, 1985.

한국 사회경제학회 편, 『사회경제평론』 2, 한울, 1990.

-----, 『사회경제평론』 3, 한울, 1991.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편, 『시대와 철학』 제2호, 동녘, 1991

-----, 『철학 대사전』, 동녘, 1989